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9.1.(금) 조간부터	배포 2017.8.31.(목)	
책임자	금융위 은행과장 박 광(02-2100-2950)	담당자	김성진 사무관 (02-2100-2951)	
	자본시장과장 박민우(02-2100-2650)		송병관 사무관 (02-2100-2652)	
	중소기업과장 신진창(02-2100-2990)		양재훈 사무관 (02-2100-2993) 김 준 사무관 (02-2100-2994)	
	보험과장 손주형(02-2100-2960)		권기순 사무관 (02-2100-2963)	

제 목 : 생산적 금융을 위한 「자본규제 등 개편 TF」 개최

- ◆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강화, 생산적·혁신적 분야로 자금흐름 유도 등을 위해 **금융권 전반의 자본규제 등 유인체계 개편**에 착수
- ◆ 가계부문으로 **자금쏠림**을 유도하는 **비대칭적인 규제**를 개선하고, 특정분야 자금 편중위험에 대한 **거시건전성 규제 보완** 등 검토
- ◆ 금융업권별 현황, 규제 특성 등을 감안하여 **자본규제**를 비롯한 **레버리지 규제, 건전성 분류 기준** 등 다양한 유인수단 강구 예정

1. 개요

- '17.8.31일(목) 14:00,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**생산적 금융**을 위한 「**자본규제 등 개편 TF**」 1차 총괄회의를 개최함

※ 「자본규제 등 개편 TF」 개요

- 일시·장소 : '17.8.31.(목) 14:00, 금감원 통의동 연수원
- 주요 참석자
 - (금융위) 부위원장, 상임위원, 서비스국장, 자문관, 은행과장 등
 - (금감원) 부원장보, 은행·보험·금투·저축은행·상호여전 담당 국장
 - (한국은행) 부총재보
 - 금융연구원·보험연구원·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

2. 주요 논의내용

(1) 자본규제 등 개편 추진배경

-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, “**금융은 경제를 흐르게 하는 강물**”이고, 자금을 필요로 하는 **생산적 부문으로 물길이 막힘없이 흘러가야** 하며,
 - 금융이 **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, 일자리 창출**에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**생산적 금융의 지향점**이라고 언급
- 이 과정에서 강물이 넘치거나 메마르지 않도록 **적정 수위를 유지**하고, **필요한 곳에 물이 흘러가도록 세심하게 관리**해야 하듯이
 - 자본규제 등은 금융권이 **적정 자본을 유지**하면서, 위험을 판단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기준이 되는 **매우 중요한 유인체계**라고 강조하였음
- 그러나, 이 유인체계가 제대로 설계되어 있고 또 작동하는지에 대해 일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
 - 가계여신의 느슨한 규제부담은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 보다는 **가계대출을 늘리는 유인**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,
 - 이는 금융권이 주담대 등 **손쉬운 영업에 안주**하는 ‘**보신적 행태**’를 고착화시키는 **하나의 원인**도 제공하였음
 - 또한, 지나치게 **보수적·경직적인 자본규제** 등으로 기업금융을 원활히 공급할 **인센티브가 미흡한 부문**도 있음
 - **과도한 가계부문 여신쏠림**은 **경제의 잠재 리스크**를 증대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,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‘**새로운 틀**’을 **강구할 필요**도 있음

- 이에 따라, '자본규제 등 개편 TF'는 자금중개의 효율성 제고 등 금융규제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,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개선·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,
 - 이를 통해, 금융권의 합리적 자금배분 의사결정을 유도하며, 보수적 영업 행태 등도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힘

[2] 기본 추진방향

- 이어, 4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자본규제 등 금융규제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
- ① 혁신·중소기업 등 기업부문에 비해 가계금융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'비대칭적인' 규제 부문은 바로 잡겠음
 - 고위험 주담대, 부동산 PF 등에 대해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자본규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, 은행에 준하여 2금융권 리스크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 등도 점검할 예정임
 - 아울러,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의 타당성 등도 검토해 보겠음
- ② 생산적 자금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금융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개선해야 함
 - 동산담보대출,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위험인식 기준 등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,
 -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자본활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임

- ③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정 분야 편중위험을 평가·관리하는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도 보완하겠음
 - 특정 부문의 대출규모 또는 팽창 속도 등이 과도할 때에는 추가 자본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겠음
- ④ 금융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,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있는 부문 등도 정비해 나가겠음

- 참석자들은 생산적 금융의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유인체계의 취지에 공감하며, 향후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TF 운용방향 등을 논의하였음
 - 현장감 있는 논의를 위해 금융협회 등 시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, 해외제도와 사례 등도 광범위하게 수집·검토
 - 거시금융 안정 차원에서 편중위험 평가·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방향 및 효과 등도 면밀히 분석

3. 향후 계획

- 9월부터 4개 업권별 분과 TF(은행·보험·금투·중소금융)를 운용하여, 시장 의견수렴 및 세부 개선방안 검토
 - 총괄 TF는 쟁점 논의, 추가과제 발굴 등을 위해 수시 개최
- 연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 최종안 마련·발표 예정